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證》篇의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具滋權·金聖勳*·宋孝貞**

I. 緒 論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證》篇은 ‘癰腫’, ‘腸癰’, ‘金瘡’, ‘浸淫病’의 辨證施治 및 豫後에 對해 論述한 篇으로¹⁻²⁾, 오늘날까지 瘡瘍, 癰腫 등 外科 疾患의

診斷 治療의 理論 및 臨床活用に 있어 매우 重要한 價値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³⁻⁴⁾.

癰腫, ‘腸癰’, ‘金瘡’, ‘浸淫病’은 모두 外科疾患에 屬하므로 합쳐서 한 篇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며, 特히 腸癰의 辨證論治는 다른 內容에 비해 더욱 仔細히 敘述되어져 現在까지 臨床적으로 많은 效果를 거두고 있는 部分이라 할 수 있다³⁻⁵⁾.

癰腫의 ‘癰’은 各種 癰瘍疾病의 總稱으로, 體表 및 四肢에 생기는 것을 ‘外癰’이라 稱하고, 胸腹肢體 內或 臟腑 內에 생기는 것을 ‘內癰’이라 稱한다. 韓醫學의 最古 經典인 《內經》에서부터 이에 對한 言及을 볼 수 있는데, 《靈樞·癰疽篇》⁶⁾에서는 癰腫을 陰證과 陽證으로 나누어 癰腫에 對하여 具體的인 病因病機를 認識하였음을 알 수 있다^{3-4,6)}.

腸癰은 癰腫이 大小腸의 闌尾部位에서 發生한 內癰의 한가지로 오늘날의 急性 腹證에 該當하며⁸⁾, 右下腹疼痛拒按, 右下肢屈而不慾伸, 伸則腹痛加劇하고 甚하면 發熱惡寒을 同伴하는 것을 主證으로 하는데, 《素問·厥論篇》⁷⁾에서는 “少陽厥逆, 機關不利, 機關不利者, 腰不可以行, 項不可以顧, 發腸癰不可治, 驚者 死”라고 하여 少陽火毒이 內結하여 腸癰이 發生하는 機轉을 說明하였다³⁻⁵⁾.

金瘡은 一切 金刃刀釜에 損傷된 것으로 創傷性 外傷疾患이 안에 있는 것을 包括하는 것으로, 人體가 外傷을 받은 후 종종 邪氣에 쉽게 侵犯되어, 甚하면 瘡瘍으로 變하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瘡瘍과 類似해지므로 命名한 것이다. 金瘡은 金刀가 皮肉筋骨을 傷함으로 因하니 紅腫熱痛이 나타나고 亡血傷陰이 太過함으로 氣血이 虛弱해지면 創傷이 오랫동안 愈合되지 않고, 甚하면 邪毒에 感受되어 破潰盛蘊하니 瘡瘍으로 變한다. 《靈樞·邪氣藏府病形篇》⁶⁾의 “有所墮墜, 惡血留內”는 이러한 金瘡의 病理機轉에 對해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浸淫瘡은 初期에는 마치 疥와 같다가 점차 黃水가 나오고 浸淫彌漫하여 마침내 一片을 이루는 痒痛難忍의 特徵을 지닌 一種의 皮膚病으로, 後世에 말하는 ‘黃水瘡’이다. 《素問·氣交變大論》⁷⁾에서는 “歲火太過, 炎暑流行, …, 身熱骨痛而爲浸淫”이라 하여 本病이 濕熱邪毒이 浸淫流布되어 發生하는 疾患이라 說明하였다³⁻⁵⁾.

이에 著者는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證治》篇의 癰腫, 腸癰, 金瘡, 浸淫瘡의 病因, 病機, 症狀, 治方에 對하여 여러 注家의 說을 比較 考察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薏苡附子敗醬散

【原文】

腸癰之爲病, 其身甲錯¹⁾, 腹皮^{<1>}急²⁾, 按之濡³⁾, 如腫狀⁴⁾,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此爲腸內^{<2>}有癰膿, 薏苡附子敗醬散主之.

薏苡附子敗醬散方: 薏苡仁 10分 附子 2分 敗醬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5分

上三味, 杵爲末, 取方寸匕, 以水二升, 煎減半, 頓服, 小便當下⁽⁵⁾.

【校勘】

<1> 《脈經》에는 “腹皮”아래의 細注에 이르기를 “一作‘支’”라 하였으며, “腹無積聚” 以下の 25字는 없다.

<2> 腹內: 醫統에는 “腸內”라 하였다.《備急千金要方·卷二十三》: “腸癰之爲病, 小腹重而強抑之則痛, 小便數似淋, 時時汗出, 復惡寒, 其身皮皆甲錯, 腹皮急如腫狀, 其脈數者, 小有膿也(巢源云洪數者已有膿也)”.

【字解】

(1) 身甲錯: 皮膚甲錯을 이른다. 皮는 甲을 이르고, 거칠고 潤澤하지 못한 것을 錯이라 하였다. 甲錯은 皮膚가 거친 모양을 말하는데, 손으로 만져 거리길 정도로 乾燥하고 潤澤하지 못한 것을 이른다.

(2) 急: 緊張

(3) 濡: “綿軟” 或은 “柔軟”의 뜻이다.《淮南子·說山》“厲利劍者必以柔砥, 擊鍾磬者必以濡木”.

(4) 如腫狀: “腹皮急”의 뒤에 接하여, 文章의 뜻이 順序대로 始作된다.

(5) 小便當下: 이 四字는 어떤 사람이 本文에 校注하여 小體字로 되어 있다.

【解釋】

腸癰은 皮膚가 甲錯하고, 腹部의 皮膚가 急하며, 누르면 濡하고, 腫氣모양이며 腹部에는 積聚가 없으며, 몸에 熱도 없으면서 脈은 數하다. 이것은 腸內에 癰膿이 있는 것으로 薏苡附子敗醬散으로 다스린다.

薏苡附子敗醬散方: 薏苡仁 10分 附子 2分 敗醬 5分

위의 三味를 嚙아서 細末하여 한 손가락을 捫二升으로 一升이 되게 달여 頓服하는데, 服用後에 마땅히 小便이 나온다.

【病因·病理】

本方은 腸癰膿이 이미 이루어진 症狀을 治療한다. 腸癰이란 것은 腸內에 發生한 癰腫으로 腹部의 疼痛이 일어나는 疾患이다. 이 腸癰은 關尾部

位의 一種의 內癰이다. 癰이 發生하는 이유는 膏梁珍味를 즐겨 먹거나, 內部로 濕熱火毒을 일으키거나, 밖으로 六淫邪毒에 感染되거나, 또는 外部의 傷害로 因하거나, 毒氣에 의한 感染 등에 依해서이다. 毒邪가 人體內에 쌓이면 營衛가 不和하고 氣血이 凝滯되어 經絡이 막혀 行하지 못하니 이에 癰腫이 生한다. 表에 發生한 것을 外癰이라 稱하고, 內藏에 發生한 것을 內癰이라 稱한다.

本方證의 腸癰은 膿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病人의 腹部皮膚가 비록 緊張되어도 약간 隆起가 되어 있고, 다만 按하면 濡軟하고 硬하지 않는다. 이것은 腹內의 積聚와는 같지 않으니, 이른바 “如腫狀, 腹無積聚”와 같다. 腸中의 氣血이 많이 鬱滯되면 熱毒이 積을 이루고, 血이 敗하여 肉腐하면 癰膿을 이룬다; 또한 病이 腸에 局限되어 全身에 熱이 없다; 또한 營血이 裏에 오래되어 肌膚가 潤養을 喪失하니, 고로 鱗甲처럼 粗狀을 띤다. 營血이 비록 熱이 甚하지만 단지 陽氣不足이니 正이 邪를 이길 수 없다. 고로 그 脈이 數하며 無力하다.

以上에서 述하였듯이, 本方은 熱毒이 臟에 結하여 傳導가 不利하여 局部의 氣血이 凝滯되어 證이 甚하고 肉腐하여 癰膿을 이루었으나 아직 潰는 이루지 않은 證에 마땅하다. 故로 治療함에 마땅히 解毒排膿, 通陽散結을 治法으로 삼는다.

方中の 薏苡仁은 甘淡微寒하여 利濕排膿하고, 敗醬草는 苦寒하여 清熱解毒, 活血排膿하여 營鬱의 熱을 瀉하고, 附子는 辛溫하니 元陽을 振奮시켜 陰寒은 解하고 血은 溫行시키고 肉은 溫長시킨다. 三味가 相伍하여 清熱排膿하며 陽氣를 傷하지 않으니 溫陽扶正하고 熱毒은 毒지 않는 고로 清熱解毒하며 血行膿去하고 新肌가 再生하여 腸癰이 治癒된다.

方後에 말한 “小便當下”는 註家가 論하길 錯簡이라 하였다. 단지 魏念庭은 “服後以小便下爲度者, 小便者, 氣化也, 氣通則癰膿結者可開, 滯者可行, 而大便必泄洩穢膿血, 腸癰可已矣”라 하였다. 이에서 腸膿이 內結하면 氣機가 不暢하고 小便 역시 下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小便이 下하는 것은 氣機가 暢通하여 腸膿의 結한 것이 풀린 것을 의미한

다. 이것으로 “小便當下”가 錯簡이 아님을 主張했다.

《金匱要略論注》에서 말하였다. 이 腸癰은 腸胃의 病이니, 臟은 陽明이 되고, 陽明은 一身의 肌肉을 主管하니 고로 반드시 그 몸이 甲錯하다 하였다. 腹은 臟의 部가 되는 연고로 腹의 皮膚가 急하고, 熱毒의 氣가 上鼓하니 氣는 無形이므로 按하면 濡하는 것이다. 그러나 皮膚가 急한 것이 腫狀과 같아도 實際로는 積聚가 아니다. 病이 表에 있지 않으니 身이 無熱하고, 熱이 비록 없어도 脈數하고, 癰은 血病이고 脈主血하기 때문에 고로 腸癰이 되는 것이다. 薏苡仁의 寒은 能除熱하고 兼하여 下氣除濕하며 腸胃를 利하고 毒腫을 破하니 菀이 된다. 敗醬草는 排膿破血을 잘하고 熱結毒氣를 利하니 臣이 된다. 附子는 導熱行結하니 佐가 된다.(徐忠可)

《金匱要略心典》에서 말하였다. 甲錯은 皮膚에서 일어나 鱗甲의 交錯된 것과 恰似하다. 中에서 營滯하니 外에서 血燥한다. 腹의 皮膚가 急한데 按하면 濡하는 것은 氣는 비록 外鼓하니 病은 皮間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積聚는 腫瘡의 根이 되니, 脈數은 身熱의 徵候요, 이제 腹이 腫狀과 같으나 積聚가 없고 身에 熱이 없으며 脈數한 것은 腸內에 癰이 있는 것이 아니라 營鬱이 成熟한 때문이다. 薏苡仁은 毒種을 破하고 腸胃를 利하니 菀이 되고, 敗醬草는 苦菜라고도 하며 暴熱火瘡를 治하고 排膿破血하므로 臣이 되고, 附子는 辛熱로써 鬱滯한 氣를 行한다.(尤在涇)

結論지으면, 本方의 證候는 腸癰膿이 이미 成하여 正氣가 이미 損傷된 것이다. 故로 治함에 排膿消腫, 振奮陽氣한 것이다. 服藥 후 氣가 和暢하면 膿血이 大便을 따라 排出된다.

大黃牧丹湯

【原文】

腸癰^{<1>}者, 小腹腫痞^{<2>}, 按之即痛如淋^{<2>}, 小便自調, 時時發熱, 自汗出, 復惡寒, 其脈遲緊者, 膿未成, 可下之, 當有血. 脈洪數者, 膿已成, 不可下也, 大黃牧丹湯主之^{<3>}.

大黃牧丹湯方: 大黃 4兩 牧丹 1兩 桃仁 50個 瓜子^{<4>} 半升 芒硝 3合

上五味, 以水六升, 煮取一升, 去滓, 內芒硝, 再煎沸, 頓服之, 有膿當下; 如無膿, 當下血.

【校勘】

<1> 腸癰: 《正脈》에는 본래 “腫癰”이라 하였으며, 《脈經》, 《千金》에 根據하여 보면 “腸癰”이라 하였다.

<2> 《脈經》: “痞”字이 없다; “痛”字 뒤에 “小便數如淋”이 있으며, “小便自調”의 4字는 없는데, 《巢源》, 《千金》도 같다.

【字解】

(1) 腫痞: 腸中에 有形의 癰腫痞塞의 腸癰을 指稱하는데, 손으로 觸診하여 壓痛과 反跳痛이 있는 것이니 故로 腫痞라 한다. 痞는 結硬을 이른다.

(2) 按之即痛如淋: 觸診時에 腸癰이 나타난 蘭門部位를 按壓하였을때 淋病의 疾患에서 나타나는 感覺과 類似的한 刺痛이 膀胱에서부터 前陰까지 나타나는 것을 指稱한다.

(3) 大黃牧丹湯主之: 原文에 根據하여 보면 “大黃牧丹湯主之”의 一句는 “膿未成, 可下之”의 뒤에 接하는 것이 마땅하다. 仲景의 이 句를 倒置하여 보면, 그 뜻이 正反對이니, 鑑別診斷을 強調한 것이니, 倒裝文法에 屬한다.

(4) 瓜子: 歷代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 解釋이 있는데, 하나는 甜瓜子, 하나는 冬瓜子라는 解釋이다. 前者는 血分에 入하고, 後者는 排膿한다. 唐代以後에 冬瓜仁이라는 主張이 많으며, 近代 臨床에서는 冬瓜仁을 多用한다.

【解釋】

腸癰은 小腹이 腫痞하고, 누르면 淋病처럼 아프나, 小便是 보통때와 마찬가지로이다. 때때로 發熱하여 汗出하지만 또한 惡寒한다. 脈이 遲緊한 것은 膿이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下法을 써야하며, 마땅히 血을 下하여야 한다. 脈이 洪數한 것은 이미 膿이 생긴 것이므로 下法을 써서는 안되며, 大黃牧丹湯으로 다스린다.

大黃牧丹湯方: 大黃 4兩 牧丹 1兩 桃仁 50個 瓜子 半升 芒硝 3合

위의 五味 중 芒硝를 除外한 나머지 네가지 藥을 물 六升으로 一升이 되게 달여 滓를 除去하고, 여기에 다시 芒硝를 넣고 끓여 頓服한다. 膿

이 있으면 마땅히 大便과 더불어 下하게 되고, 膿이 없으면 血을 下한다.

【病因·病理】

本方은 腸癰膿이 未成한 急證을 治한다.

本方證은 熱毒이 內取하여 營血이 腸에 瘀하고 經脈不通하며 局部氣壅血瘀하여 積熱積血이 서로 結하고 腸癰은 아직 成하지 않아 少腹局部疼痛, 拘急拒按, 按하면 疼痛極烈하고, 會陰과 尿管이 땅기며 疼痛하여 淋痛과 같은 症狀이다. 病이 腸에 있고 膀胱과 腎에 있는 것이 아니니 小便이 自調한다. 腹部症狀 외에 病因이 往往 正邪相爭으로 인한 營鬱衛阻 또는 發熱 惡寒 自汗出證을 호소한다. 熱과 血瘀로 因해 脈은 遲緊急有力하다. 이때 可히 下法을 使用하여 瘀熱積血을 攻하여 血行氣暢하면 腸癰이 治愈된다.

方後 注에 이른 “頓服하여 膿을 下하니, 膿이 없으면 下血한다”한 것은 醫師에게 臨床症狀을 提示한 것이니, 腸癰에 膿의 與否를 論하지 않고 脈遲有力 또는 數有力, 大便秘結, 小便短赤, 舌紅苔黃燥 등 裏熱實證者는 可히 本方을 使用할 수 있으니 단지 體虛膿已成者에겐 慎用한다.

以上을 綜合하면, 本方證은 瘀熱內結한 腸癰의 實證이다. 實은 散瀉하는 것이니, 六腑의 生理는 瀉而不藏한다. 通하면 不痛하는 것이니 “其下者, 引以竭之”에 根據하여 治함에 마땅히 泄熱逐瘀 破血排膿法을 使用한다. 方中 大黃은 腸의 熱結을 蕩滌하고, 凝聚된 瘀血을 각는 主藥이다. 芒硝는 鹹寒하여 瘀熱을 瀉下하고, 大黃의 瀉熱散結을 도와 消腫한다. 桃仁은 破血散結하고 大黃의 破瘀消腫하여 鎮痛함을 돕는다. 牡丹皮는 涼血活血 化瘀消腫하고 瓜蒌子는 排膿療痛한다. 이 藥物들이 相倍하여 蕩滌解毒 消癰排膿 逐瘀攻下하는 效果를 보인다.

瓜蒌子는 <醫統正脈>에 “瓜子”라 하였으니, 後世醫家가 冬瓜子으로 解析하였다. 冬瓜子는 甘涼하여 主要作用이 利尿하는데 있는데 利尿하면 大便을 實하게 하니, 本方의 腸癰實熱하여 膿未成한 時期에 瓜蒌子の 甘寒이 肺胃大腸經에 入하면 可히 潤肺 化痰 滑腸하는 고로 本方에 瓜蒌仁이 마땅하다. 단지 冬瓜子를 使用한다는 主張은 腸中の

濕熱을 清熱하는 것인데, 만약 腸癰이 이미 成膿하면 가히 排膿, 散結消腫, 腸癰消腫促進하여 內癰의 要藥이 된다. 臨證에 二者의 使用法에 대해 研究하여 經驗으로 行할 것이다.

<金匱玉函經二注> 腸癰으로 少腹을 按하지 못하는 것은, 陽邪下結하여 部位가 땅기는 것이다. 按하면 淋과 같은 것은 形態는 癰狀이나, 情況은 이와 같은 것이다. 무릇 血病而氣不病하니 小便 自調한다. 그러나 陽邪가 이미 盛하므로 衛氣가 虛하여 發熱 汗出 惡寒한다. 癰證이 이와 같으면 治하는 法은 膿의 已成 未成에 따라 다르다. 法을 앞에 脈에서 起因하지 않음이 없으니, 脈沈緊한 것은 內에서 血瘀하고 成癰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어찌 빨리 桃仁承氣湯으로 下하겠는가? 脈洪數者는 이미 成膿한 것이니 瘀가 있음에 下할 수 있다. 이는 大黃牡丹皮으로 清熱排膿하는데 반드시 使用한다.(趙以德)

<金匱顯解> 癰이 小腸에 있는 症狀을 살펴보면, 小腸은 위에 있고 癰은 腹筋에 있으니, 位置가 깊으면 腹皮가 急하고 누르면 腫갈아서 煎湯으로 毒을 小便로 排出한다. 癰이 大腸에 있으면, 大腸은 위에 있고 癰急은 小腹에 있으니, 位置가 얇은 즉 痞腫의 形狀이 있으니 按하기 쉽고 痛하면 大黃牡丹皮湯으로 排膿血하여 大便으로 下한다.

總括하면 本方은 清熱解毒, 消腫排膿, 逐瘀攻下하여 腸癰에 潰瘍未成 或 初成에 使用한다.

王不留行散

【原文】

問曰, 寸口脈浮⁽¹⁾微而澁, 法⁽²⁾當亡血, 若⁽³⁾汗出, 設不汗者云何? 答曰, 若身有瘡⁽⁴⁾, 被刀斧⁽⁵⁾所傷, 亡血故也.

病金瘡⁽¹⁾, 王不留行散主之.

王不留行散方: 王不留行 10分(八月八日采) 蒴藋⁽⁶⁾細葉 10分(七月七日采) 桑東南根白皮 10分(三月三日采) 甘草 18分⁽²⁾ 川椒 3分(除目⁽⁷⁾及閉口⁽⁸⁾者, 去汗) 黃芩 2分 乾薑 2分 厚朴 2分 芍藥 2分

上九味, 桑根皮以上三味, 燒灰成性, 勿令灰過; 各別杵篩, 合治之爲散, 服方寸匕. 小瘡卽粉之⁽⁹⁾, 大瘡但服之, 產後亦可服. 如風寒, 桑東根勿取之. 前三物, 皆陰乾百日.

【校勘】

<1> 金瘡：桂林古本《傷寒雜病論·卷十五·辨癰血吐衄下血瘡癰脈證并治》에는 “金瘡”字뒤에 “無膿者”의 三字가 있다.

<2> 甘草 18分：《今釋》에는 “甘草 10分”이라 하였다. “甘草는 모든 版本에는 18分이라 하였는데, 主藥보다 많아 不當한 故로 모든 책을 고쳐야 한다.

【字解】

- (1) 浮：《脈經》《千金》에는 “浮”字가 없다.
- (2) 法： “然”字는 다른 注에 “法”字로 되어있다.
- (3) 若： “若”字는 여기에서는 “如果”로 解釋한다.
- (4) 瘡： “金瘡”을 指稱한다.
- (5) 斧： 도끼, 베다, 도끼와 같은 銳利한 物.
- (6) 蒴藿： 本 藥物은 忍冬科의 植物인 蒴藿의 全草 或은 根을 말한다. 金瘡에 붙여 使用하는데, 蒴藿의 꽃은 陸英이라고 稱하는데, “陸英은 性이 苦寒無毒하여, 骨間의 모든 痺를 主한다.” 黃元御의 《長沙藥解》에 蒴藿는 “그 맛이 苦微凉하고, 足厥陰肝經에 入하여, 行血通經하고 消瘀化凝한다.”고 說明하였다. 蒴藿은 清熱解毒, 活血消癰, 續筋接骨의 效能이 있다.
- (7) 除目： 川椒仁을 除去하는 物을 이른다.
- (8) 閉口： 아직 열지 않아 未成熟한 川椒를 指稱한다.
- (9) 粉之： 外傷의 部位가 比較的 적고, 少量의 出血에 粉劑로하여 傷處에 붙이면 止血定痛하게 된다.

【解釋】

물기를 寸口脈이 浮微하고 澁한 경우는 마땅히 亡血이나 汗出이 있는데, 오히려 發汗하지 않는 경우는 어찌합니까? 대답하기를 만약 身體에 瘡가 있으면, 그것은 칼이나 도끼 등의 銳利한 物으로 傷하여 亡血하였기 때문이다.

金瘡에는 王不留行散으로 다스린다.

王不留行散方： 王不留行 10分(八月八日에 採取) 蒴藿細葉 10分(七月七日에 採取) 桑東南根白皮 10分(三月三日에 採取) 甘草 18分 川椒 3分(씨나 입이 열리지 않는 未成熟한 것은 除外하고 기름기

를 뺀다.) 黃芩 2分 乾薑 2分 厚朴 2分 芍藥 2分

위의 九味中 桑白皮까지 三味는 燒하여 灰로 만들어 使用하는데, 다만 지나치게 태우지 않는다. 나머지는 甑아서 漚로 쳐서 細末하여 잘 섞어 한 손가락을 服用한다. 瘡가 작으면 그 傷處에 뿌리고, 傷處가 크면 服用한다. 産後에도 역시 服用이 可하다. 바람이 불거나 추운 날에는 桑東根을 採取해서는 안된다. 앞의 세가지 藥物(王不留行, 蒴藿細葉, 桑東南根白皮)은 모두 百日동안 그늘에 말려 使用한다.

【病因·病理】

本方은 金瘡의 證治이다.

金瘡者는 刀斧로 損傷된 바이다. 刀 矛 劍 戟 鐵 鈞 矢 등 各種金屬傷을 包含한다. 이것은 外傷性 疾患이다. 外傷後 經脈肌膚가 折傷하여 피가 나고, 衛氣營血이 正常順行을 하지 못하여 經絡이 阻滯되어 傷口가 쉽게 愈合되지 않으므로 消毒包扎해야 한다. 包扎과 同時에 이 散劑를 傷口에 붙여 經脈을 舒暢條達시켜 行氣止血케 하고 或은 皮膚損傷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潰爛 되기도 한다.

金瘡者는 刀斧로 損傷된 바이다. 刀 矛 劍 戟 鐵 鈞 矢 등 各種金屬傷을 包含한다. 이것은 外傷性 疾患이다. 外傷後 經脈肌膚가 折傷하여 피가 나고, 衛氣營血이 正常順行을 하지 못하여 經絡이 阻滯되어 傷口가 쉽게 愈合되지 않으므로 消毒包扎해야 한다. 包扎과 同時에 이 散劑를 傷口에 붙여 經脈을 舒暢條達시켜 行氣止血케 하고 或은 皮膚損傷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潰爛 되기도 한다.

方中 王不留行이 主藥으로 行血止血 通經鎮痛하고, 蒴藿細葉은 血分으로 入하여 止血하고, 倍甘草는 益氣解毒과 緩急止痛하고, 乾薑과 川椒는 溫陽으로서 氣血을 돌리고, 芍藥은 統血痺 하고, 黃芩은 清熱防腐하고 厚朴은 行氣滯로서 利血行한다. 모든 藥味가 合하여 氣血을 調暢하여 止血鎮痛의 功이 있다.

무릇 金屬으로 傷하여 出血이되고 腫痛한 者는 모두 使用하는데 內服外敷가 마땅하고 産後惡露者는 祛瘀止血의 功을 取해야 한다.

原文에 藥物의 採集時期는 그 大略의 時日이고 正數는 아니다.

<金匱要略心典>曰 ; 金瘡 金刃으로 傷한 바가 瘡이 된者. 經脈이 折傷되고 營衛가 阻滯된것의 治療는 반드시 經脈을 다시금 行하여 營衛가 相貫하게 한다. 王不留行散은 行氣血 和陰陽하는 良制이다. (尤在涇)

<金匱方歌括>曰; 金刃으로 傷處난 곳을 단단하게 密着 시키지 않아 風을 맞으면 瘡口에 汁은 없고 水를 맞으면 靑黃汁이 出하고 風일 것 같으면 疼痛을 發하고 水일 것 같으면 濕爛하여 瘡을 이룬다. 王不留行은 經絡의 血을 빨리 行하게하여 全身으로 灌漑하여 傷處에 湍激하지 못하게 하고 桑根皮는 肌肉의 風水를 泄하고 蒴藋葉은 解釋에 接骨草로 나오는데 筋骨의 風水를 滲泄한다. 이 세가지는 모두 燒灰하여 血分으로 入하여 祛邪止血한다. 川椒는 瘡口의 風을 去하고 厚朴은 刀痕의 濕을 말리고 黃芩은 肌熱을 退하고 芍藥은 惡血을 散하고 乾薑은 和陽하고 甘草는 和陰하여 君으로 使用하여 血分으로 入하여 退腫生肌한다. 風濕去 陰陽和 瘡口收 肌肉生 이는 金瘡治療의 大要이다.(陳修園)

總括하여 말하면 本方은 金瘡治療의 要制가 되고 外敷 또는 內服이 可能하다.

排膿散

【原文】

排膿散^{<1>}方 : 枳實 16枚 芍藥 6分 桔梗 2分

上三味, 杵爲散, 取鷄子黃一枚, 以藥散與鷄黃相等, 揉和令相得, 飲和腹之, 日一服.

【校勘】

<1> 桂林古本<<傷寒雜病論·卷十五·辨癰血吐衄下血瘡癰脈證并治>>에는 “有膿者, 排膿散主之, 排膿湯亦主之”라 하여 앞의 第六條와 더불어 一條로 記載되어 있다.

【解釋】

排膿散方 : 枳實 16枚 芍藥 6分 桔梗 2分

위의 三味를 擘아서 細末하고 鷄卵 노란자위 1 個를 取하여 鷄卵 노란자위와 같은 量의 藥을 잘 섞어서 一日 一回 服用한다.

【病因·病理】

本方은 瘡癰膿將成未成者를 治療한다.

本方의 證은 熱毒瘀滯가 一處에 聚해서 氣血이 不通하여 熱鬱血瘀하고 蒸腐血肉하여 膿이 成하지 않은 것으로 熱毒이 比較的 成한 證이다. 고로 本方을 使用하여 排膿化毒한다. 대개 氣行하면 血活하고 血行하면 膿不留하며 養血하면 生肌하고 新肉하면 腐肉去한다. 腐去하고 膿消하면 瘡癰이 스스로 낫는다.

方中の 枳實은 苦寒하여 利氣逐滯하는고로 鬱熱을 除하는 主藥이며; 桔梗은 肺氣를 開提하여 排膿하여 이미가 相互 配伍하여 氣分의 滯를 行하므로써 排膿을 促進하고; 芍藥은 血脈을 通하고 血痺를 除하고; 鷄子黃은 甘潤하며 護陰滋血한다. 諸味는 相互 協助하여 排膿化毒의 效를 다한다.

<<金匱要略心典>>에 말하기를 枳實은 苦寒하여 除熱破滯의 君藥이고 芍藥을 얻어 統血하고 桔梗을 얻어 利氣하고 鷄子黃의 甘潤을 얻어 排膿化毒의 本이 된다.(尤在涇)

<<金匱要略釋義>>에 말하기를 氣行하면 水行하고 水行하면 膿盡하는 고로 排膿에 桔梗을 使用하여 氣를 開利하여 水를 行하고 아울러 枳實을 協助를 輔佐받아 固膿을 血化하여 利血하고 芍藥을 使用하여 혈이 이미 腐化되고 成膿하면 반드시 去血하니 一面排膿으로서 氣分의 實을 除去하며 一面 鷄子黃으로서 血分의 虛를 補한다.(黃樹曾)

總括하면 本方은 排膿化毒의 方劑이며 瘡癰膿이 成未成한 者에 使用한다.

排膿湯

【原文】

排膿湯方 : 甘草 2兩, 桔梗 3兩 生薑 1兩 大棗 10枚

上四味, 以水三升, 煮取一升, 溫服五合, 日再服.

【解釋】

排膿湯方 : 甘草 2兩, 桔梗 3兩 生薑 1兩 大棗 10枚

위의 四味를 水 三升으로 一升이 되게 달여 五合씩 하루에 두번 服用한다.

【病因·病理】

本方은 內癰 膿成初潰의 症狀을 治療한다.

本方은 原文主證은 없다. 方으로 症狀을 推測하

면 內癰 膿成初潰에 使用한다. 血敗肉腐하고 癰膿 初潰外泄하고 咯吐膿血腥臭하며; 熱毒瘀結, 肺損絡 傷하는 故로 때때로 咯血; 膿毒蘊肺, 肺氣不利하는 故로 喘息不得臥하며; 熱毒內蒸하는 故로 身熱하고 赤하며 煩渴喜飲한다.

上述한 것을 綜合하면 本方은 內癰膿成初潰에 使用하는 故로 治하는 것은 排膿解毒을 治法으로 한다. 膿이 이미 形成되면 마땅히 排膿이 要旨가 되며 이때가 治療의 關鍵이며 膿液을 일찍 排除하여야 한다. 同時에 熱毒이 盛하면 주의해서 解毒해야 한다.

方中에 桔梗, 甘草는 桔梗湯이 된다. 甘草는 清熱瀉火解毒, 緩急迫하고; 桔梗은 宣肺利氣排膿하며; 薑棗는 調和胃氣하여 營衛를 調和한다. 四味는 相伍 配伍하므로써 清熱解毒하여 排膿去癰한다.

《金匱要略論注》에 말하기를: 甘桔은 肺氣를 開提하고 薑棗는 中上焦의 營衛를 調和하여 內氣를 通利하고 膿을 凝滯하지 않는다. 위의 兩方으로 瘡癰이 散하지 않는자는 大概 治療의 方이 단 지 腸癰腫痛이 있는 것이다. (徐忠可)

《絳雪園古方選注》에 말하기를 排는 斥이다; 膿은 血肉이 變化한 所致이다. 前方(排膿散)은 枳實, 赤芍藥으로 桔梗을 도와주어 大腸으로 다달아 泄氣破血하여 膿을 斥出한다. 後方(本方)은 甘, 桔, 姜, 棗로 上焦를 따라 肺氣를 開提하여 營衛를 調和하고 氣行하게 하면 膿이 스스로 下한다. 證으로 方을 使用하니 學者는 마음깊이 새겨야 한다. (王子接)

《金匱方歌括》에 말하기를 方中에 桔梗, 生薑의 辛味를 取하고 大棗, 甘草의 甘味를 取하여 辛甘은 發散하니 陽이되어 毒으로 하여금 陽으로 化하여 出하게 되어 排하는 妙가 있는 것이다. (陳修園)

總括하면 本方은 內癰膿初成의 方劑가 된다.

黃連粉

【原文】

浸淫瘡⁽¹⁾, 從口流向四肢⁽²⁾者, 可治, 從四肢流來入口者不可治.

浸淫瘡, 黃連粉主之.⁽³⁾

【校勘】

<1> 桂林古本《傷寒雜病論·卷十五·辨癩血吐衄下血瘡癰脈證并治》에는 “黃連粉方: 黃連 10分, 甘草 10分. 右二味, 搗爲末, 飲服方寸匕, 并粉其瘡上(右의 二味를 嚙아 細末하여 한 술가락을 飲服하고 아울러 瘡上에 바른다)”이라고 說明하였다.

【字解】

(1) 浸淫瘡: 浸은 浸漬를 이른다. 淫은 蔓延을 이른다. 점점 스며들어 커져간다는 의미이다.

(2) 從口流向四肢: 口는 口는 古來 注家에 의하면 口部를 指稱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는 心窩等의 中心部分을 指稱한다 하였다. 李氏의 注에 根據하여 보면 두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口部이고, 하나는 內里이다.

(3) 이 條文은 끝이 아니니, 別本에는 대개 “方未見”의 三字가 있다.

【解釋】

浸淫瘡은 口에서 始作하여 四肢로 向하면 治療할 수 있으나, 四肢에서 始作하여 口로 向하면 治療가 어렵다.

浸淫瘡은 黃連粉으로 다스린다.

【病因·病理】

本方은 浸淫瘡의 外治法이다.

浸淫瘡은 熱毒濕邪의 疾患이며 “諸痛痒瘡 皆屬於心”으로 心經에 濕熱大毒한 所致이다. 熱과 濕은 相溷하니 熱은 濕滯하고 結하여 되고 濕은 熱張하고 蔓延하여되니 弥漫沈積全身하여 淫溢하여 不已하다. 故로 마땅히 清瀉心火, 燥濕火毒한다. 黃連粉使用하여 治療한다.

方中에 黃連은 手少陰心經의 火를 瀉하고 微苦하여 燥濕하며 寒으로 除熱하고; 甘草는 清熱瀉火解毒한다. 이미는 相互 協助하여 清心火解熱毒한다.

《諸病源候論》에 말하기를 浸淫瘡은 心家에 風熱이 있어 肌膚에 發하니 처음에는 아주 작게 生하며 先痒後痛하여 瘡을 이루어 汁이 出하고 肌肉이 沈潰하여 浸淫이 점차 徧體에 넓어지고 瘡은 口를 따라 나오며 四肢에 흩어지면 輕하고 만일 四肢에서 生하여 然後에 口로 들어가는 者는 重하다. 漸漸增大되어 浸淫瘡으로 名하였다. (巢元方)

《金匱要略心典》에 말하기를 浸淫瘡은 《臟腑

經絡編》중에 있으나 黃連粉은 未見하며 그 意味
 是 熱濕熱浸淫之病人 故로 黃連一味를 粉하는 燥濕
 하고 寒味는 除熱한다.(尤在涇)

總括하면 本方은 浸淫瘡의 外治法이다.

□ 瘡癰腸癰浸淫病脈證治方 □

■ 薏苡附子敗醬散 ■

醫 家	原 文
徐彬	此論瘡癰。乃腸胃之病。似宜只腹痛而不及外。不知癰乃血脈間病。腸爲陽明。陽明主一身肌肉。故必其身甲錯。…… 腹爲腸之府。故腹皮急。毒熱之氣上鼓也。氣非有形。故按之濡。然皮之急雖如腫狀。而實無積聚也。病不在表。故身無熱。熱雖無而脈數。癰爲血病。脈主血也。故曰此爲腸癰。薏苡寒能除熱。兼下氣勝濕。利腸胃。破毒腫。故以爲君。敗醬善排膿破血。利結熱毒氣。故以爲臣。附子導熱行結。故爲反佐。(金匱要略論注)
尤在涇	甲錯。肌皮于起如鱗之交錯。由營滯于中。故血燥于外也。腹皮急按之濡。氣雖外鼓。而病不在皮間也。積聚爲腫脹之根。脈數爲身熱之候。今腹如腫狀。而中無積聚。身不發熱。而脈反見數。非腸內有癰。營鬱成熱而何。薏苡破毒腫。利腸胃爲君；敗醬一名苦菜。治暴熱大瘡。排膿破血爲臣。附子則假其辛熱以行鬱滯之氣耳。(金匱要略心典)
魏荔彤	薏苡下氣則能泄膿。…… 服後以小便下爲度者。小便者氣化也。氣通則癰膿結者可開。滯者可行。而大便必泄汚穢膿血。腸癰可已矣。頓服者。取其快捷之力也。(本義)
正林	癰生于內。則氣血內歸而爲膿。不能外出以養肌肉。故肌肉爲之枯皴。內既有癰。則外不可以目察。故腹皮但急。內則可以手按。故有濡如腫狀也。脈數者。當內有積聚而外有熱。今內無積聚而外于無熱。則數脈者必生惡瘡。故知內有腸癰之患。薏苡利腸胃。……(直解)
陳實功	初期小腹疼痛。小便不利。六脈微緩。不作寒熱者輕。已成小腹腫而堅硬。小便數而不利。六脈洪數者險。已潰時時下膿。裏急後重。日夜無度。疼痛不減者重。潰後膿腥臭穢。或流敗水濁淤。虛熱更增不食者死。(外科正宗·腸癰論)
譚日強	本條論述慢性腸癰化膿的治療。 慢性腸癰。血滯于內。不能外榮肌膚。故其身如鱗甲之交錯；內無積聚。故腹皮雖急而按之濡如腫狀；病屬慢性。故身無熱；熱鬱血分。故其脈數；這是腸內有癰膿的證候。薏苡附子敗醬散：薏苡除濕排膿。敗醬解毒消癰。少佐附子。以顧護陽氣。故主治之。(淺述)

■ 大黃牡丹皮湯 ■

醫 家	原 文
周揚俊	夫血病而氣不病。故小便自調。然陽邪已盛。衛氣漸虛。遂發熱汗出而畏寒也。癰症如是。治之者須以膿成未成爲異。欲知之法。舍脈無由。脈遲緊知未熟。爲血瘀于內。勿使成膿。下之須早。非桃仁承氣湯乎。脈苦洪數者。則已成矣。豈復有痧可下。此大黃丹皮以滌熱排膿。勢所必用也。(金匱玉函經二注)
魏念庭	腸癰者。內癰之屬。而結于小腸者也。故少腹腫而氣覺痞塞不通。按之即痛如淋。却小便自調。知非淋也。時時發熱汗出。復惡寒。猶之前所言發熱而反洒淅惡寒之義也。診之其脈遲而緊。此脈必爲尺脈。尺脈遲緊。宜爲寒證。而少腹見腫。發熱汗出。按之腹痛。俱非寒證也。且寒則但有脹而必無腫理。且按之必不痛。審乎此知少腹腫而成癰。有確据也。然脈得遲緊。熱伏而血凝之象。膿未成可知矣。故知當有蓄血。爲陰寒之邪所凝聚而溢。久久變熱發腫。將爲癰膿而未成也。孰知尺中遲緊有實熱之邪乎。仲景明其爲當有血。猶之經言血溢變熱成癰之旨也。若尺脈見洪數者。血變之熱。已灼熏下焦而成膿矣。蓋熱發則成膿。成膿則洪數之脈見。熱邪已透也。熱不發則不成膿。不成膿則遲緊之脈見。熱尚伏血中也。熱伏血中。蓄血之類也。可下之。如抵當湯丸等方是也。……(金匱要略方論本義)

程林	腫則形于外，痞則着于內，小腹既已痞腫，則腸癰已成，故按之即痛也。如淋者，以小腹為厥陰經脈所過，厥陰脈循陰器，故小腹按而痛引陰莖，有如淋狀，而小便則自調也。靈樞經曰：有所結，氣歸之，內既有癰，則營衛稽留于內，而不衛外，故令有發熱汗出，惡寒也。脈遲緊者，則熱未聚而肉未腐，故宜大黃牡丹湯下之，以消其腫瘍，……（直解）
張璠	腸癰下血，腹中痠痛，其始發熱惡寒，欲驗其證，必小腹滿痛，小便淋瀝，反側不便，即為腸癰之確候，無論已成未成，俱用大黃牡丹湯加犀角急服之……（張氏醫通·腸癰）
高學山	……李氏舊注，謂本方當在膿未成可下之下，誤。如果為下未膿之方，則成膿者，將死不治乎。抑別有方未傳，或傳而殘缺耶，且方後不得曰有膿當下矣。（高注金匱要略）
鄭藝文	此節方注，有膿當下，無膿當下血，與前文有膿不可下相矛盾，然細玩之，知瘡癰化膿尚未潰破，未形成腹膜炎，應在可下之列，早下正所以防癰膿潰散，彌漫于腹腔，故此謂有膿當下，沒尚未化膿，則熱邪鬱血成瘡，用此散結破瘡之劑，則下血而癰消，不致養癰貽患。（金匱要略淺釋）
李廷	汗出亡陽則為脈微，亡血傷陰則脈濇，微與濇皆陰脈也，設不汗而瘡瘍金瘡，雖不亡陽而亡血，故亦見微濇之脈也，總是營衛虛衰之故。
譚日強	本條論述急性腸癰的診斷和治療。 急性腸癰，血瘀于內，故少腹腫痞；少腹與陰器相近，故按之即痛如淋；膀胱無病，故小便自調；營衛失常，故發熱汗出惡寒；其脈遲緊者，熱毒未聚，其膿未成，故可下之，以通瘀血；脈洪數者，熱毒已聚，其膿已成，故不可下，以防穿孔，大黃牡丹湯：大黃，芒硝，清下實熱，丹皮，桃仁，行瘀活血，瓜子消癰排膿，故主治之。（淺述）

■ 王不留行散 ■

醫家	原文
尤怡	金瘡，金刀所傷而成瘡者，經脈斬絕，營衛沮弛，治之者必使經脈復行，營衛相貫而後已。王不留行散，則行氣血，和陰陽之良劑也。（金匱要略心典）
魏念庭	主之以王不留行散，以王不留行為君，專主血分，止血定痛，而且除風散痺，于血分最宜也。……小瘡則合諸藥為粉以敷之，大瘡則服之，治內以安外也。產後亦可服者，行瘀血也。（金匱要略方論本義）
陳元犀	金刀傷處，封固不密，中于風則瘡口無汁，中于水則出青黃汁，風則發癢，水則濕爛成瘡，王不留行疾行脈絡之血灌溉周身，不使其湍激于傷處，……（金匱方歌括）
徐彬	此非上文傷久無汗之金瘡方，乃概治金瘡方也，故曰病金瘡，王不留行散主之，……（論注）
程林	王不留行主金瘡止血，桑根白皮可縫金瘡，金瘡亡血，則風寒易乘而入，故用蒴藋，川椒肘風疹而去大風，……（直解）
曹家達	此方有象皮之潤，……血分熱度，以亡血而低，中陽失運，故宜溫，而終以通利血脈止金創血為要，故以王不留行，蒴藋細葉為方中主藥，而芍藥佐之，又復倍用甘草以和諸藥，使得通行表裏，此王不留行散之大旨也。（發微）
譚日強	本條論述金刀創傷的治療。 金瘡，指金刀創傷，王不留行散：王不留行主金瘡止血，蒴藋細葉能通利氣血，桑東南根主傷中脈絕，三味陰于燒灰存性，取其黑能止血；黃芩，芍藥，清熱防腐，川椒，乾薑，行瘀活血，厚朴破滯行氣，甘草和諸藥而解毒，共奏消瘀止血鎮痛之效，故小創可外敷之，大創可內服之，產後亦可服。（淺述）

■ 排膿散 ■

醫家	原文
魏念庭	排膿散爲瘡癰將成未成，治里之法也。(金匱要略方論本義)
尤怡	枳實苦寒，除熱破滯爲君，得芍藥則通血，得桔梗則利氣，尤懶鷄子黃之甘潤，以爲排膿化毒之本也。(金匱要略心典)
黃樹曾	夫氣行則水行，水行則膿盡，故排膿必用桔梗開利其氣以行其水，并佐枳殼爲之助，因膿由血化，故兼利血，而用芍藥，惟血既腐化而成膿，則去血必多，爰一面排膿以去其氣分之實，一面用鷄子黃以補其血分之虛。(金匱要略釋義)

■ 排膿湯 ■

醫家	原文
魏念庭	排膿湯一方，尤爲緩治，蓋上部咽喉之間有欲成瘡癰之機，卽當急服也。甘草桔梗，卽桔梗湯，已見用肺癰病中，加以生薑大棗以固胃氣，正盛而邪火斯易解散也。瘡癰未成者，服之則可開解；已成者，服之則可吐膿血而愈矣。(金匱要略方論本義)
徐彬	甘桔以開其肺氣，薑棗以和中上焦之營衛，使內氣通利，而膿不凝也。以上兩方，乃爲瘡癰不能散者概治之方，不獨爲腸癰腫癰沒也。(金匱要略論注)
黃樹曾	按排膿散，卽枳實芍藥散加桔梗鷄子黃；排膿湯，卽桔梗湯加薑棗，二方除桔梗外，無一味同，皆以排膿名，可見桔梗爲排膿之要藥。……(金匱要略釋義)

■ 黃連粉 ■

醫家	原文
尤怡	黃連粉方未見，大意以此爲濕熱浸淫之病，故取黃連一味爲粉粉之，苦以燥濕，寒以除熱也。(金匱要略心典)
陳修園	黃連粉方未見，疑卽黃連一味爲粉外敷之，甚者亦內服之。諸瘡痛痒，皆屬心火，黃連苦寒瀉心火，所以主之。(金匱要略淺注)
陸淵雷	……徐氏沈氏皆以爲黃連一味之粉……然古醫書別有數方，以黃連胡粉爲主藥。(今釋)
諸病源候論	浸淫瘡，是心家有風熱，發于肌膚，初生甚小，先痒後痛而成瘡，汁出浸潰肌肉，浸淫漸闊遍體，其瘡若從口出流散四肢則輕；若從四肢生，然後入口者則重，以其漸漸增長，因名浸淫也。(諸病源候論·浸淫瘡候)
譚日強	此兩條論述浸淫瘡的豫後和治療。 浸淫瘡，卽濕熱成瘡之浸潤蔓延者；從口起流向四肢，是瘡毒外出，故爲可治；從四肢流來入口，是瘡毒內侵，故不可治。黃連粉方未見，可能是用黃連一味爲粉敷瘡上，取其苦以燥濕，寒以除熱，故主治之。(淺述)

III. 考 察

《金匱要略》은 東漢의 張仲景이 著述한 中國에 現存하는 雜病研究의 專門書 가운데 가장 오래된 冊으로, 北宋의 仁宗時代(1022-1062)에 翰林學士 王洙가 戰亂시 消失되었다가 翰林院에 保存되어 있던 《金匱玉函要略方》을 발견하고 林億 등이 傷寒論은 削除하고 雜病 및 婦人病 治療部分만 拔萃, 編纂한 것이 《金匱要略方論》으로 現在 流通되고 있는 것이다¹⁰⁻¹¹⁾. 이 중 〈瘰癧腸癰浸淫病脈證〉篇은 癰腫, 腸癰, 金瘡, 浸淫病의 辨證施治 및 豫後에 關해 論述되었으며 이는 모두 外科疾患에 屬하므로 합쳐서 一篇으로 만들어졌는데¹⁻²⁾, 特히 腸癰의 辨證論治는 다른 內容에 비해 자세히 敍述되어 현재까지 臨床의으로 많은 效果를 거두고 있는 部分이다^{1,3-4)}.

薏苡附子敗醬散은 原文에 “腸癰之爲病, 其身甲錯, 腹皮急, 按之濡, 如腫狀,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此爲腸內有癰膿, 薏苡附子敗醬散主之”라고 하였다. “身甲錯”에 對해 李⁸⁾는 “皮膚甲錯을 이른다. 皮는 甲을 이르고 거칠고 潤澤하지 못한 것을 錯이라 한다. 甲錯은 皮膚가 거친 모양을 이르는데, 손으로 만져 거리길 정도로 乾燥하고 潤澤하지 못한 것을 이른다.”고 하였고, 徐²⁵⁾는 “腸癰은 腸胃의 病이니, 臟은 陽明이 되고, 陽明은 一身의 肌肉을 主管하니 고로 반드시 그 몸이 甲錯하다.”고 하였으는 “甲錯은 皮膚에서 일어나 鱗甲의 交錯된 것과 恰似하다. 中에서 營滯하니 外에서 血燥한다.”고 하였다. “腹皮急, 按之濡, 如腫狀, 腹無積聚”에 대해 李⁸⁾는 “濡는 ‘綿軟’ 或은 ‘柔軟’의 뜻이다.”고 하였고, 徐²⁵⁾는 “腹은 臟의 部가 되는 연고로 腹의 皮膚가 急하고, 熱毒의 氣가 上鼓하니 氣는 無形이므로 按하면 濡하는 것이다. 그러나 皮膚가 急한 것이 腫狀과 같아도 實際로는 積聚가 아니다.”고 하였으며, 尤²³⁾는 “腹의 皮膚가 急한데 按하면 濡하는 것은 氣는 비록 外鼓하나 病은 皮間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身無熱, 脈數”에 대해 徐²⁵⁾는 “病이 表에 있지 않으니 身이

無熱하고, 熱이 비록 없어도 脈數하고, 癰은 血病이고 脈主血하기 때문에 고로 腸癰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고, 尤²³⁾는 “積聚는 腫瘡의 根이 되니, 脈數은 身熱의 徵候요, 이제 腹이 腫狀과 같으나 積聚가 없고 身에 熱이 없으며 脈數한 것은 腸內에 癰이 있는 것이 아니라 營鬱이 成熟한 때문이다.”고 하였으며,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三》에서는 “其脈數者, 小有膿也(巢源云洪數者已有膿也)”라 하였다. “小便當下”에 대해서 李⁸⁾는 “이 四字는 어떤 사람이 本文에 校注하여 小體字로 되어 있다. 註家가 論하길 錯簡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나 단지 魏念庭은 “服用 後에 小便이 下함을 度로 삼은 것은 小便이 氣化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氣通하면 癰膿이 結한 것이 開하고, 滯한 것이 行하며 大便이 반드시 洩穢膿血을 泄하니 腸癰이 가히 낫는다.”라 하였다. 이에 癰膿이 內結하면 氣機가 不暢하고 小便역시 下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小便이 下하는 것은 氣機가 暢通하여 癰膿의 結한 것이 풀린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小便當下”가 錯簡이 아님을 主張했다.

方解에 있어서 徐²⁵⁾는 “薏苡仁의 寒은 能除熱하고 兼하여 下氣除濕하며 腸胃를 利하고 毒種을 破하니 君이 된다. 敗醬草는 排膿破血을 잘하고 熱結毒氣를 利하니 臣이 된다. 附子는 導熱行結하니 佐가 된다.”고 하였고, 尤²³⁾는 “薏苡仁은 毒種을 破하고 腸胃를 利하니 君이 되고, 敗醬草는 苦菜라고도 하며 暴熱火瘡를 治하고 排膿破血하므로 臣이 되고, 附子는 辛熱로써 鬱滯한 氣를 行한다.”고 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熱毒이 腸에 瘀結되고 氣血이 凝滯하여 鬱熱함에 肉敗하여 腸癰이 化膿된 것을 排膿解毒, 通陽散結시켜주는 處方으로 腸癰의 慢性期에 使用되니, 腸癰이란 癰腫이 大小腸의 闌尾部位에서 發生한 內癰의 한가지로 右下腹疼痛拒按, 右下肢屈而不伸, 伸則腹痛加劇하며 甚하면 發熱惡寒을 同伴하는 것을 主證으로 한다.

大黃牡丹皮湯은 “原文에 腸癰者, 小腹腫痞, 按之即痛如淋, 小便自調, 時時發熱, 自汗出, 復惡寒, 其脈遲緊者, 膿未成, 可下之, 當有血. 脈洪數者, 膿已成, 不可下也, 大黃牡丹湯主之”라고 하였다. “腸癰

은 《正脈》에는 본래 “腫癰”이라 하였으며, 《脈經》, 《千金》에 根據하여 보면 “腸癰”이라 하였다. “小腹腫痞, 按之即痛如淋, 小便自調”에 있어서 《脈經》에는 “痞”字이 없고 “痛”字 뒤에 “小便數如淋”이 있으며, “小便自調”의 4字는 없는데 《巢源》, 《千金》도 같다. 李⁸⁾는 “腫痞는 腸中에 有形의 癰腫痞塞의 腸癰을 指稱하는데, 손으로 觸診하여 壓痛과 反跳痛이 있는 것이니 故로 腫痞라 한다. 痞는 結硬을 이른다. 按之即痛如淋은 觸診時에 腸癰이 나타난 蘭門部位를 按壓하였을 때 淋病의 疾患에서 나타나는 感覺과 類似한 刺痛이 膀胱에서 부터 前陰까지 나타나는 것을 指稱한다. 病이 腸에 있고 膀胱과 腎에 있는 것이 아니니 小便이 自調한다.”고 하였고, 趙¹⁶⁾는 “腸癰으로 少腹을 按하지 못하는 것은, 陽邪下結하여 部位가 땅기는 것이다. 按하면 淋과 같은 것은 形態는 癰狀이나, 情況은 이와 같은 것이다. 무릇 血病而氣不病하니 小便自調한다.”고 하였으며, 黃²⁸⁾은 “癰이 小腸에 있는 症狀를 살펴보면, 小腸은 위에 있고 癰은 腹筋에 있으니, 位置가 깊으면 腹皮가 急하고 누르면 腫같아서 煎湯으로 毒을 小便으로 排出한다. 癰이 大腸에 있으면, 大腸은 위에 있고 癰急은 小腹에 있으니, 位置가 얕은즉 痞腫의 形狀이 있으니 按하기 쉽다.”고 하였다.

“其脈遲緊者, 膿未成, 可下之, 當有血. 脈洪數者, 膿已成, 不可下也, 大黃牡丹湯主之. 大黃牡丹湯主之”에 對해 李⁸⁾는 “原文에 根據하여 보면 ‘大黃牡丹湯主之’의 一句는 ‘膿未成, 可下之’의 뒤에 接하는 것이 마땅하다. 仲景에 이 句를 倒置하여 보면, 그 뜻이 正反對이니, 鑑別診斷을 強調한 것이니, 倒裝文法에 屬한다.”고 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李⁸⁾는 “方中 大黃은 腸의 熱結을 蕩滌하고 凝聚된 瘀血을 푸는 主藥이다. 芒硝는 鹹寒하여 瘀熱을 瀉下하고, 大黃의 瀉熱散結을 도와 消腫한다. 桃仁은 破血散結하고 大黃은 破瘀消腫하여 鎮痛함을 돕는다. 牡丹皮는 涼血活血, 化瘀消腫하고 瓜蒌子는 排膿療痛한다. 이 藥物들이 相伍하여 蕩滌解毒, 消癰排膿, 逐瘀攻下하는 效果를 보인다. 瓜蒌子는 <醫統正脈>에 ‘瓜子’라 하였으니, 後世醫家가 冬瓜子으로 解析하였다. 冬瓜子

는 甘涼하여 主要作用이 利尿하는데 있는데 利尿하면 大便을 實하게 하니, 本方의 腸癰實熱하여 膿未成한 時期에 瓜蒌子의 甘寒이 肺胃大腸經에 入하면 可히 潤肺 化痰 滑腸하는 고로 本方에 瓜蒌仁이 마땅하다. 단지 冬瓜子를 使用한다는 主張은 腸中의 濕熱을 清熱하는 것인데, 만약 腸癰이 이미 成膿하면 가히 排膿 散結消腫 腸癰消腫促進하여 內癰의 要藥이 된다. 瓜子에 대해 歷代에서 지금까지 두가지 解釋이 있는데, 하나는 括瓜子, 하나는 冬瓜子라는 解釋이다. 前者는 血分에 入하고, 後者는 排膿한다. 唐代以後에 冬瓜仁이라는 主張이 많으며, 近代 臨床에서는 冬瓜仁을 多用한다.”고 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熱毒이 內取하고 營血이 下腸에 瘀結하여 積熱과 積血이 서로 結合함에 腸癰이 아직 膿을 이루지 않은 것을 蕩熱解毒, 逐瘀攻下 시켜주는 處方으로 腸癰의 急性期에 使用된다.

王不留行散의 原文은 “問曰 寸口脈浮微而澁 法當亡血 若汗出 設不汗者云何 答曰 若身有瘡 被刀斧所傷 亡血故也 病金瘡 王不留行散主之”이다. 尤²³⁾는 “金瘡, 金刀으로 傷한 바가 瘡이 된 것이다. 經脈이 折傷되고 營衛가 阻滯된 것의 治療는 반드시 經脈을 다시금 行하여 營衛가 相貫하게 하는 것이다. 王不留行散은 行氣血, 和陰陽하는 良劑이다.”고 하였고, 陳¹⁷⁾은 “金刀으로 傷處난 곳을 단단하게 密着 시키지 않아 風을 맞으면 瘡口에 汁은 없고 水를 맞으면 清黃汁이 出하고 風일 것 같으면 疼痛을 發하고 水일 것 같으면 濕爛하여 瘡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李⁸⁾는 “外傷後 經脈肌膚가 折傷하여 皮가 나고, 衛氣營血이 正常順行을 하지 못하여 經絡이 阻滯되어 傷口가 쉽게 愈合되지 않으므로 消毒包紮해야 한다. 包紮과 同時에 이 散劑를 傷口에 붙여 經脈을 舒暢條達시켜 行氣止血케 하고 或은 皮膚損傷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潰爛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陳¹⁷⁾은 “王不留行은 經絡의 血을 빨리 行하게하여 全身으로 灌溉하여 傷處에 湍激하지 못하게 하고, 桑根皮는 肌肉의 風水를 泄하고, 蒴藋葉은 解釋에 接骨草로 나오는데 筋骨의 風水를 滲泄한다. 이 세가지는 모두 燒灰하여 血

分으로 入하여 祛邪止血한다. 川椒는 瘡口의 風을 去하고, 厚朴은 刀痕의 濕을 말리고, 黃芩은 肌熱을 退하고, 芍藥은 惡血을 散하고, 乾薑은 和陽하고, 甘草는 和陰하여 君으로 使用하여 血分으로 入하여 退腫生肌한다. 風濕去 陰陽和 瘡口收 肌肉生은 金瘡治療의 大要이다.”고 하였고, 李⁸¹⁾는 “方中 王不留行이 主藥으로 行血止血 通經鎮痛하고, 蒴藿細葉은 血分으로 入하여 止血하고, 倍甘草는 益氣解毒과 緩急止痛하고, 乾薑과 川椒는 溫陽으로서 氣血을 돌리고, 芍藥은 統血痺하고, 黃芩은 清熱防腐하고, 厚朴은 行氣滯로서 利血行한다. 모든 藥味가 合하여 氣血을 調暢하여 止血鎮痛의 功이 있다. 무릇 金屬으로 傷하여 出血이되고 腫痛한 者는 모두 使用하는데 內服外敷가 마땅하고 產後惡露者는 祛瘀止血의 功을 取해야 한다. 原文에 藥物의 採集時期는 그 大略의 時日이고 正數는 아니다.”고 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刀斧傷으로 外傷한 後에 經脈肌膚가 折傷하여 衛氣와 營血이 失調된 것을 行氣血, 通經脈시켜주는 處方으로 金瘡에 使用되니, 金瘡은 一切 金刀刀釜에 損傷된 創傷性 外傷疾患으로 人體가 外傷을 받은 후 邪氣에 쉽게 侵犯되어, 甚하면 瘡瘍으로 變하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瘡瘍과 類似해지므로 命名한 것이다.

排膿散은 瘡癰膿將成未成者를 治療한다. 尤²³⁾는 “枳實은 苦寒하여 除熱破滯의 君藥이고 芍藥을 얻어 統血하고 桔梗을 얻어 利氣하고 鷄子黃의 甘潤을 얻어 排膿化毒의 本이 된다.”고 하였고, 黃²⁸⁾은 “氣行하면 水行하고 水行하면 膿盡하는 故로 排膿에 桔梗을 使用하여 氣를 開利하여 水를 行하고 아울러 枳實을 協助를 輔佐받아 固膿을 血化하여 利血하고 芍藥을 使用하여 血이 이미 腐化되고 成膿하면 반드시 去血하니 一面排膿으로서 氣分의 實을 除去하며 一面 鷄子黃으로서 血分의 虛를 補한다.”고 하였다. 李⁸¹⁾는 “本方의 證은 熱毒瘀滯가 一處에 聚해서 氣血이 不通하여 熱鬱血瘀하고 蒸腐血肉하여 膿이 成하지 않은 것으로 熱毒이 比較的 成한 證이다. 故로 本方을 使用하여 排膿化毒한다. 大개 氣行하면 血活하고 血行하면 膿不留하며 養血하면 生肌하고 新肉하면 腐肉이 去한다.

腐去하고 膿消하면 瘡癰이 스스로 낫는다.”고 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瘡癰의 熱毒較盛하여 膿將成未成한 것을 排膿化毒시켜주는 處方으로 排膿通用方으로 使用되니, 癰腫의 ‘癰’은 各種 癰瘍疾病의 總稱으로, 體表 및 四肢에 생기는 것을 ‘外癰’이라 稱하고, 胸腹肢體 內 或 臟腑 內에 생기는 것을 ‘內癰’이라 稱한다.

排膿湯은 內癰 膿成初潰의 症狀을 治療한다. 徐²⁵⁾는 “桔梗은 肺氣를 開提하고 薑棗는 中上焦의 營衛를 調和하여 內氣를 通利하고 膿을 凝滯하지 않는다. 위의 兩方은 瘡癰이 散하지 않은 것을 治療하는 方으로 단지 腸癰腫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고, 王²⁹⁾은 “排는 斥이다. 膿은 血肉이 變化한 所致이다. 前方(排膿散)은 枳實, 赤芍藥으로 桔梗을 도와주어 大腸으로 다달아 泄氣破血하여 膿을 斥出한다. 後方(本方)은 甘, 桔, 姜, 棗로 上焦를 따라 肺氣를 開提하여 營衛를 調和하고 氣行하게 하면 膿이 스스로 下한다. 證으로 方을 使用하니 學者는 마음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였으며, 陳¹⁷⁾은 “方中에 桔梗, 生薑의 辛味를 取하고 大棗, 甘草의 甘味를 取하여 辛甘은 發散하니 陽이 되어 毒으로 하여금 陽으로 化하여 出하게 되어 排하는 妙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李⁸¹⁾는 “本方은 原文主證은 없다. 方으로 症狀을 推測하면 內癰 膿成初潰에 使用한다. 血收肉腐하고 癰膿初潰外泄하고 咯吐膿血腥臭하며; 熱毒瘀結, 肺損絡傷하는 故로 때때로 咯血하며; 膿毒蘊肺, 肺氣不利하는 故로 喘息不得臥하며; 熱毒內蒸하는 故로 身熱하고 赤하며 煩渴喜飲한다. 上述한 것을 綜合하면 本方은 內癰膿成初潰에 사용하는 故로 治하는 것은 排膿解毒을 治法으로 한다. 膿이 이미 形成되면 마땅히 排膿이 要旨가 되며 이때가 治療의 關鍵이며 膿液을 일찍 排除하여야 한다. 同時에 熱毒이 盛하면 주의해서 解毒해야 한다.”고 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熱毒盤踞하여 內癰膿成初潰한 것을 清熱解毒, 消腫排膿시켜주는 處方으로, 排膿散과 마찬가지로 排膿通用方으로 使用된다.

黃連粉의 原文은 “浸淫瘡 從口流向四肢者 可治

從四肢流來入口者 不可治 浸淫瘡 黃連粉主之”이다. “浸淫瘡”의 ‘浸’은 ‘浸漬’을 이르고 ‘淫’은 ‘蔓延’을 이르니 점점 스며들어 커져간다는 의미이다. 巢⁹⁾는 “浸淫瘡은 心家에 風熱이 있어 肌膚에 發하니 처음에는 아주 작게 生하며 先痒後痛하여 瘡을 이루어 汁이 出하고 肌肉이 沈潰하여 浸淫이 점차 徧體에 넓어지고 瘡은 입을 따라 나와 四肢에 흠어지면 輕하고 만일 四肢에서 生하여 口部로 들어가는 것은 重하다. 점점 增大되므로 浸淫瘡으로 名하였다.”고 하였다. “從口流向四肢”에 있어서 ‘口’는 많은 古來 注家에 의하면 口部를 指稱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는 心窩 等の 中心部分을 指稱한다고도 하였다. 李氏의 注에 根據하여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口部이고, 하나는 內里이다. 이 條文은 끝이 아니며, 別本에는 大개 “方未見”의 三字가 있다. 尤²³⁾가 말하기를 “浸淫瘡은 《臟腑經絡編》중에도 있으나 黃連粉은 未見하며 그 意味는 濕熱浸淫之病人 故로 黃連一味를 粉

하니 苦味는 燥濕하고 寒味는 除熱한다.”고 하였고, 陸³⁰⁾은 “徐氏沈氏는 모두 黃連一味의 粉이라 하였으나 古醫書에는 따로 數方이 있으니 黃連胡粉을 爲主로 한 藥이다.”고 하였으니 《傷寒雜病論》에는 ‘黃連十分, 甘草十分’, 《千金要方》에는 ‘黃連二兩, 胡粉十分, 水銀一兩’ 등으로 記載되어 있다.

總括하면 本方은 熱毒과 濕邪가 心經을 犯及한 것을 清瀉心火, 燥濕化毒시켜주는 處方으로 浸淫瘡에 使用된다. 浸淫瘡은 初期에는 마치 疥와 같다가 점차 黃水가 나오고 浸淫彌漫하여 마침내 一片을 이루는 痒痛難忍의 特徵을 지닌 一種의 皮膚病으로, 後世에 말하는 ‘黃水瘡’이다.

以上の 內容을 圖表化 하면 다음과 같다.

IV. 結 論

癰	初期	脈象	浮數	
		症狀	當發熱, 而反洒淅惡寒, 局部有痛處	
腫	觸診	以手掩腫上	熱者	爲有膿
			不熱者	爲無膿
腸癰	慢性	脈證	其身甲錯, 腹皮急, 按之濡, 如腫狀,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病機	腸內有癰膿	
		治療	薏苡附子敗醬散(排膿消癰, 清熱解毒, 通陽散結)	
腸癰	急性	症狀	小腹腫痞, 按之即痛如淋, 小便自調, 時時發熱, 自汗出, 復惡寒	
		脈診	遲緊	膿未成, 可下之, 當有血.
		病機	洪數	膿已成, 不可下
		治療	熱毒蓄結於腸, 血瘀成癰的熱證實證 膿未成或初成未潰治以大黃牡丹湯(蕩熱解毒, 消腫排膿, 逐瘀攻下)	
金瘡	診斷	脈象	寸口脈浮微而溢	亡血 汗出
		辨證	設不汗出, 若身有瘡, 被刀斧所傷, 亡血	
排膿通用方	排膿散	王不留行散(祛瘀生新, 通調氣血, 治上續筋, 止血鎮痛)		
	排膿湯	適用於腸癰化膿, 陰虛瘀熱較甚者		
浸淫瘡	豫後	適用於肺癰化膿, 無熱象, 兼風寒者		
		從口流向四肢者, 可治		
	治療	從四肢流來入口者不可治. 黃連粉(清瀉心火, 燥濕解毒)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證證治》에 記載된 6개의 處方의 病證을 病理的으로 鑑別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薏苡附子敗醬散은 熱毒이 腸에 瘀結되고 氣血이 凝滯하여 鬱熱함에 肉敗하여 腸癰이 化膿된 것을 排膿解毒, 通陽散結시켜주는 處方으로 腸癰의 慢性期에 使用되니, 腸癰이란 癰腫이 大小腸의 闌尾部位에서 發生한 內癰의 한가지로 右下腹疼痛 拒按, 右下肢屈而不伸, 伸則腹痛加劇하며 甚하면 發熱惡寒을 同伴하는 것을 主證으로 한다.

2. 大黃牡丹湯은 熱毒이 內取하고 營血이 下腸에 瘀結하여 積熱과 積血이 서로 結合함에 腸癰이 아직 膿을 이루지 않은 것을 蕩熱解毒, 逐瘀攻下시켜주는 處方으로 腸癰의 急性期에 使用된다.

3. 王不留行散은 刀斧傷으로 外傷한 後에 經脈肌膚가 折傷하여 衛氣와 營血이 失調된 것을 行氣血, 通經脈시켜주는 處方으로 金瘡에 使用되니, 金瘡은 一切 金刃刀釜에 損傷된 創傷性 外傷疾患으로 人體가 外傷을 받은 후 邪氣에 쉽게 侵犯되어, 甚하면 瘡瘍으로 變하고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瘡瘍과 類似해지므로 命名한 것이다.

4. 排膿散은 瘡癰의 熱毒較盛하여 膿將成未成한 것을 排膿化毒시켜주는 處方으로 排膿通用方으로 使用되니, 癰腫의 '癰'은 各種 癰瘍疾病의 總稱으로, 體表 및 四肢에 생기는 것을 '外癰'이라 稱하고, 胸腹肢體 內或 臟腑 內에 생기는 것을 '內癰'이라 稱한다.

5. 排膿湯은 熱毒盤踞하여 內癰膿成初潰한 것을 清熱解毒, 消腫排膿시켜주는 處方으로, 排膿散과 마찬가지로 排膿通用方으로 使用된다.

6. 黃連粉은 熱毒과 濕邪가 心經을 犯及한 것을 清瀉心火, 燥濕化毒시켜주는 處方으로 浸淫瘡에 使用된다. 浸淫瘡은 初期에는 마치 疥와 같다가 점차 黃水가 나오고 浸淫瀰漫하여 마침내 一片을 이루는 痒痛難忍의 特徵을 지닌 一種의 皮膚病으로, 後世에 말하는 '黃水瘡'이다.

參 考 文 獻

1. 成都中醫學院: 金匱要略選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72-176 1981.
2. 李克光: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pp522-540 1989.
3. 李克光, 張家禮: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582-596 1995.
4. 王建平, 史定文 外: 金匱要略自學輔導, 中醫古籍出版社, pp164-167 1988.
5. 何任 外: 金匱要略語譯, 人民衛生出版社, pp127-130 1990.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36, pp345-346 1985.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p169-170, 248-250 1985
8. 李文瑞 主編: 金匱要略湯證論治,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p643-664 1993.
9. 巢元方: 諸病源候論, 大星文化社, p242, 364 1992.
10. 中國中醫研究院 編: 正統金匱要略, 醫學研究社, pp31-38, pp375-383 1983.
11. 李東建: 國譯金匱要略, 書宛堂, pp261-266 1996.
12. 陳修園: 金匱要略淺註, 香港太平書局出版, pp169-173 1975.
13. 李克光 外: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243-244 1989.
14. 杜雨茂, 張聯惠: 金匱要略闡釋, 醫聖堂, pp539-550 1994.
15. 蔣先德: 金匱要略, 春秋出版社, pp176-182 1988.
16. 趙以德, 周揚俊: 金匱玉函經二註, 人民衛生出版社, pp310-314 1990.
17. 陳修園: 金匱方歌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06-110 1980.
18. 文棣 校注: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106-108 1993.
19. 楊宏仁: 金匱要略重編, 世一書局, pp242-247 中華民國 72年 12月.
20. 楊向輝: 金匱要略注釋, 國立編譯館, 正中書局印行, pp243-247 1994.

21. 呂志杰: 金匱雜病論治全書, 中醫古籍出版社, pp415-423 1995.

22. 宋書功: 金匱要略廣注校註, 人民衛生出版社, pp221-225 1994.

23. 尤在涇: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p134-137 1992.

24. 程淋: 金匱要略直解,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

25. 徐忠可: 金匱要略論注,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

26. 沈明宗: 金匱要略編註,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

27. 魏念庭: 金匱要略本義,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

28. 黃樹曾: 金匱要略釋義,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

29. 王子接: 絳雪圓古方選注,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

30. 陸淵雷: 金匱要略今釋,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643-664 1993.